

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 동향(4월 4주차)

1. 해외 동향

국가	주요 동향
미 국	유통·소비 ○ 유기농 농산물 네트워크(OPN)의 2021년 1분기 신선류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농산물 판매는 2020년 동기 대비 9.3% 증가한 22억불. - 매출 순위 : (가격) 살라드, 베리, 사과, 허브, 당근, 상추, 바나나, 감귤, 토마토 감자 순 (물량) 바나나, 당근, 사과, 살라드, 베리, 감자, 감귤, 상추, 양파, 허브 순 (4.13/Organic Produce Network) ○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아시안 업주들이 타 인종과 비교해 코로나 기간 동안 재정적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.(아시안 90%, 흑인 85%, 히스패닉 77%가 매출감소) * 출처 : 로이터통신 ○ 3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9.8% 급증했다고 발표 (출처 : 연방 상무부) ○ Kroger사는 오하이오주 먼로(Monroe)에서 최초의 Ocado 자동화 온라인 식료품 창고를 오픈함. 약 375,000 평방 피트에 달하는 먼로(Monroe) 고객 주문 처리 센터는 매일 수천 건의 배송 주문을 처리 가능(4.16/Supermarket News)
	바이어·수입 ○ (S사) 선사 확보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. 한국산 농식품류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 수요에 맞춘 공급에 어려움 발생 ○ (Y사) 현지 한인 및 중국계 마트 대상 한국산 팡이버섯 공급 물량 부족으로 중국산 팡이버섯들이 입점을 확대해가며 판매 중이라고 함. 원활한 한국산 팡이버섯 공급을 위해 4월말 한국 방문을 통해 신규 버섯 수출 업체를 물색 예정 ○ (H사) 일부 한국산 농산물의 공급 부족으로 매대가 비어 타 품목으로 채우고 있음.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HMR 및 냉동식품 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물류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선사 사전 확보 등 노력중. ○ (O사) 컵밥, 라면 등 HMR 위주 수입 및 유통. 최근 증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해야 하나 물류 애로로 재고가 부족한 상황 발생. ○ (J사) 최근 라면 인기로 현지마트에 라면 납품 증가, 올해 타 품목까지 입점 확대 추진 중.

2. 통관 · 검역 이슈

중국 주요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 현황(4.20)

지역해관		냉장냉동식품 수입가능 여부	냉장냉동식품 핵산검사 여부 (바이어 대상 의견조사)	냉장냉동식품 통관 소요 시간
베이징 (北京)		불가	-	-
톈진 (天津)		가능	실시 (샘플링 비율 : 미공개) * 품목별, 국가별 편차 큼	3~5일 (핵산검사X), 7일~10일 (핵산검사O) * 기존 1일
상하이 (上海)	공항	가능	실시 (샘플링 비율 : 약 50~70%) * <u>파프리카 등 냉장식품</u> <u>약 50%, 냉동식품 70%</u>	1일 (핵산검사X), 7일 (핵산검사O) * 기존 1일
	항구			3~5일 (핵산검사X), 15일 (핵산검사O) * 기존 3~5일
광저우 (广州)		가능	실시 (샘플링 비율 : 미공개)	2~5일 (핵산검사X), 7~15일 (핵산검사O) * 기존 1일
칭다오 (青島)		가능	일부 실시 - 냉동수산물/냉동육류 : 100% * <u>파프리카 등 채소와 과일</u> <u>상온/냉장 일반가공식품, 냉장</u> <u>수산물</u> 은 <u>핵산검사 미진행</u>	1~2일(핵산검사X), 3~4주(핵산검사O)
웨이하이 (威海)		가능		* <u>파프리카와 같은 냉장 채소류와</u> <u>아이스크림 등 냉동 일반가공</u> <u>식품은 해관 통관시 핵산검사를</u> <u>실시하지 않으나</u> 시장감독관리국 요구사항으로 <u>전용창고 입고 후</u> <u>소독과 핵산검사를 마쳐야 유통</u> <u>가능</u>
스다오 (石島)		가능		

※ 통관시 검사 : 수입신고번호에 해당되는 컨테이너별 검사 비율(샘플 채취)

※ 상온 보관 식품은 현재 중국 지역해관의 검역 강화 대상이 아님